

십사일반 보태하니 문중발전 초석된다.

* 刊 費 諸 君 의 協 力 無 缺 是 幸 萬 分 謹 此 申 報

會 費 諸 君 國 內 匯 票 011775-0046769-11 025-01-0315-161 趙 德 善

大宗會長 3年の 總 結 算

1357쪽 총

大宗會長 趙 德 善

제가 大宗會長の 증책을 맡은지 어언 3년이 되었습니다. 그간 物心兩面으로 적극 협조하여주신 宗親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을 뒤 돌아볼 때 微力이나마 宗事に 이바지 하고자 허둥지둥 서둘기도하고 勞心焦思도 하였으나 흠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宗事란 돈과 精誠어린 協助가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건만 우리 門中은 이 興件이 모두 悭乏스러져 못해 그 成果가 期待에 미치지 못하였다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大宗會長の 증책을 맡으면서 제일먼저 내가 當面宗事문제를 宗報創刊號에 제시하고 협조를 당부 드린바 있습니다.

그 첫째가 大宗會를 活性化하기 위해서는 事務室 마련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우선 基金1억원 造成을 目標로 설정하고 會費징수를 制度化하는 동시 성의있는 贊助를 호소하였습니다. 그후 宗人한사람당 年會費 5천원을 징수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기울였으나 3년에 걸쳐 거두어드린 會費는 16,185,000원이고 贊助金 8,270,000원 계 24,455,000원으로 目標에는 근접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93년 2월말 잔금 19,000,000 원에 비해 금년 2월말 잔금 41,000,000원이나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라는 속담을 되 새기며 이것으로 滿足할 수 밖에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基金造成的 또다른 방법으로 住所錄과 순창조씨의 뿌리를 編纂發刊해서 집집마다 보내드리는 한편 世居碑 建立등 宗事を 發起해서 이 事業費 명목으로 받아드리는 책값과 찬조금증 쓰고 남은 돈을 積立하려고 하였으나 이것 역시 뜻과 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例를 든다면 정성을 기우려 1년이전 출생한 全宗員의 住所錄을 發刊해서 작년 3월1500명 일가 집집마다 우송해 드리면서 책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宗財를 돕는 뜻에서 한현당 일만원씩을 會費에 포함해서 보내달라고 당부하였으나 오늘 현재까지 188명만이 이에 따라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 印刷費3,300,000원 봉투 및 우편료 1,000,000원 합계 약 4,300,000원의 所要經費에비하면 宗財에 보탬이 되리랴던 당초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여하간 그동안 회비와 찬조금을 보내주신 宗親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회비를 보내주신 종친 연 인원 726명에 비해 지금까지 미납한 분이 더 많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더욱이 일부 宗人중에는 회비 납부를 피하기 위해 住所申告를 기피한다는 설 까지 있어 섭섭한 마음 금할수 없습니다. 事實 이를 입증하나 하듯 宗報 2호부터 11호까지 주소변경으로 반송된 272명의 명단을 공고하였으나 주소를 다시 알려온 분은 불과 10여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두번째 과제는 地域宗親會의 活性化를 당부하였으나 성과없이 구조로만 끝났습니다. 다만 派別 宗親會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없어 서로 오래동안 떨어져 있으면 이웃 사촌만도 못한것이 일가 잔입니다. 따라서 각 파별로 宗親會를 조직해서 최소한 1년에 한번 이라도 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시기를 거듭 권고합니다.

人之常情이라고 서로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宗事도 爲先道, 和睦과 紐帶의 길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끈끈한 정을 나누는 지름길이 될것입니다.

셋째는 뿌리를 定立해서 올바른 氏族史를 내·외에 널리 인식시키자고 다짐하였습니다. 뿌리정립의 필연성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번 강조하고, 宗報 5호에 「소중할 뿌리를 잘 가꾸어 빛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실 族譜를 몇번이고 반복해서 펼쳐보아도 行狀이나 子孫錄에 개인별로 여기저기 斷編의인 기록만 있으니 뿌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當然之事입니다. 따라서 宗報상의 한구절 한구절을 모아서

부족을 삼고이에 살을 붙여서 體系的으로 편찬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氏族史概要를 1993년 8월 宗報 제2호에 게재해서 일가집집마다 보내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主要 世居地의 변천」 「歷代主要人物」 「行蹟이 전해 내려오지 않는 主要人物」 「文化 遺蹟」등을 편찬 宗報에 계속 게재해서 내 보내고 지난해에는 氏族略史를 둘에 새긴 世居碑를 槐山에 세워 우리의 뿌리를 굳게 다졌습니다. 뿌리를 宗報에 연재하면서 여러 宗親으로부터 격려의 전화나 서신도 많이 받았습니니다.

어느 宗親은 뿌리를 읽고「平生 처음으로 순창조씨 문중의 한사람으로써 자부와 긍지를 간직하게 되었으며 宗報를 차곡차곡 모아서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람과 감명을 받았습니니다.

뿌리의 편찬 작업은 資料가 있는한 계속 할 것이며 완전히 종결되면 더욱 다듬어서 한편의 책으로 만들어 일가집집마다 보내드리는것이 나의 소박한 소망이며 꿈입니다.

부락의 말씀은 뿌리가 마무리된 뒤에 잘 잘못을 제기하거나 누락된 것을 원망이나 후회하지 말고 各 派門中이나 家門의 자랑거리, 유적, 유물등 자료를 빠짐없이 보내주시고 잘못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서 후회없는 뿌리가 定立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넷째는 宗報발행으로 親睦과 紐帶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네가지 當面과제중 이문제 하나만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즉 3個月에 한번씩 3년에 걸쳐 12회 발간해서 일가 집집마다 어김없이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고를 보내주시는분도 마땅한 소제도 없어 계속 발행여부를 기약할 수 없으며 일부에서는 1년에 한번만 발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分明한 事實은 만일 宗報마저 없으면 뿌리 의식을 심어 주는 길도, 宗人間에 친목과 유대를 맺는길도 회비와 찬조금을 징수하는 길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당부의 말씀은 아무리 宗報를 발간하려고 몸부림쳐도 원고가 없으면 불가능하니 宗事, 爲先, 자랑거리, 기타宗人에게 유익하고 건전하다고 생각되는 원고를 많이 보내주심으로서 宗報는 계속 발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협조바랍니다.

能力도 德望도 없는 제가 지난 3년간 宗事를 맡아 보면서 뜻과 갈지 않아 한때 갈등과 고민도 있었으나 心機一轉해서 있는 정성 다하여 뿌리편찬, 祭禮 凡節制定, 宗報發行, 會費徵收, 住所錄發行, 世居碑建立, 先祖墓 移葬事業등 宗事에 앞장서서 미력이나마 나름대로 기여하였다는 자부와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宗事를 수행하면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진리를 절감하고 우리도 「하찮은 공은 意志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宗事라도 능히 해 낼 수 있는 力量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宗親여러분!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宗事를 강건히 불구경하듯 하는것은 후손된 道理도 宗親으로서의 義務도 모두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해야할일은 오직 精誠을 기우려 宗事에 참여하고 十匙一飯 힘을 모아 점진적으로 기틀을 다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같이 힘을 모아 祖上을 숭상하고 門中을 위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참모습을 후손에게 물려줍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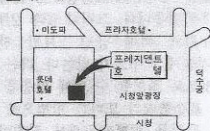
「나만을 위한 欲望은 不幸의 씨앗이 되고 宗事를 위한 精誠은 영원한 功德이 된다.」라는 格言한구절로 글을 맺겠습니다.

순창조씨 정기총회 개최 공고

순창조씨 정기총회를 회칙 제2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시 : 1996. 3. 24(일요일)11시
2. 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8-3(서울시청앞) 프레지던트호텔 31층(연회장)(전화 753-3131)
3. 의제 : 결산보고, 임원개선, 기타
4. 회비 : 2만원(점심식대 1인당 22,300원포함)

■ 略 圖



- 전철 1호선 : 시청앞 하차
- 전철 2호선 : 을지로입구하차

문중 휘장제정

순창조씨 문중의 상징적인 표식으로 사용될 휘장을 공모하여 공시하니 많은 의견 바랍니다.



* 휘장설명

활력된 무궁화(한국)속에서 발전과 번영을 약속하는 순창조씨문중을 표현.

淳昌趙氏의 뿌리

⑥행적이 전해내려오지않는 주요인물

- ②2 22세 趙元晋 (1764생) : 증직 通訓大夫 溫陵參奉 (소암파의 직조)
- ②3 22세 趙重南 (1759~1809) : 증직 通政大夫 工曹參判 副護軍 (행정파의 직조)
- ②4 23세 趙汝愚 通政大夫 戶曹參議 (양지파의 직조)
- ②5 23세 趙 槃 (1794~1852) : 折衝將軍, 繕工監 役 (청주파의 직조)
- ②6 23세 趙鉉佐 (1776~1861) : 증직 嘉善大夫 戶曹參判 (팔송파의 직조)
- ②7 23세 趙彥聖 (1762생) : 宣傳官 通訓大夫 (삼고파의 직조)
- ②8 23세 趙彥璟 (1800~1842) : 通政大夫 (삼고파의 직조)
23세 趙彥晟 (1796생) : 증직 通訓大夫 章陵參奉 (소암파의 직조)
- ②9 23세 趙鉉珩 (1787~1853) : 증직 嘉善大夫 漢城右尹 五衛將 都摠府 副摠管 (행정파의 직조)
- ③1 24세 趙 幹余 (1781~1865) : 壽資 通政大夫 折衝 副護軍 (영덕파의 직조)
- ③2 24세 趙福廷 嘉善大夫 戶曹參判 同知 義禁府使 檢 五衛都摠附 副摠管 (양지파의 직조)
- ③3 24세 趙恒淳 朝奉大夫 童蒙敎官 (청주파의 직조)
- ③4 24세 趙炳淳 (1849~1907) : 義禁府都事, 通政大夫, 唐律, 廷日, 咸昌郡守 (문경파의 직조)
- ③5 24세 趙一淳 (1853~1924) : 通政大夫 (품곡파의 직조)
- ③6 24세 趙仁淳 (1816~1894) : 壽職추증 嘉善大夫 同知 中樞府事 (팔송파의 직조)
- ③7 24세 趙義淳 (1819~1906) : 壽職추증 嘉善大夫 同知 中樞府事 (팔송파의 직조)
- 24세 趙禮淳 (1826~1893) : 증직 折衝將軍 僉知 中樞府事 檢 五衛將 通政大夫 敦寧府都正 (팔송파의 직조)
- ③9 24세 趙相知 (1838생) 法部主事, 中樞院 議官 (삼고파의 직조)

- ④0 24세 趙士知 (1830생) 1 : 通政大夫 (삼고파의 직조)
- ④1 24세 趙琪淳 (1841~1869) : 嘉善大夫 (감산파의 직조)
- ④2 24세 趙鎭淳 (1835~1915) : 義禁府都事 (송현파의 직조)
- ④3 24세 趙命淳 (1819~1889) : 증직 通政大夫 繕工監役 (소암파의 직조)
- ④4 24세 趙在淳 (1830~1907) : 壽資 通政大夫 (소암파의 직조)
- ④5 24세 趙慶淳 (1811~1891) : 壽資 通政大夫 折衝將軍 龍驤衛副護軍 (행정파의 직조)
- ④6 24세 趙泳淳 (1842~1906) : 入者老社, 嘉善大夫 (담등파의 직조)
- ④7 25세 趙命培 (1807~1889) : 崇正大夫 同知 中樞府事 (양지파의 직조)
- ④8 25세 趙憲東 (1872생) : 農商工部主事 (청주파의 직조)
- ④9 25세 趙元裁 (1845~1922) : 通政大夫 (지곡파의 직조)
- ⑤0 25세 趙元夏 (1863생) : 參奉 (문경파의 직조)
- ⑤1 25세 趙元泳 (1886~1918) : 章陵參奉 (문경파의 직조)
- ⑤2 25세 趙憲成 (1831~1914) : 通政大夫 秘書丞 (이안파의 직조)
- ⑤3 25세 趙源國 (1856~1913) : 肇慶參奉 (이곡파의 직조)
- ⑤4 25세 趙憲焯 (1852~1901) : 中樞院議官 通政大夫 (삼고파의 직조)
- ⑤5 25세 趙憲燮 (1839~1918) : 通政大夫 (삼고파의 직조)

宗親소식

○부부박사(夫婦博士)탄생

담등파 趙泰雄 이학박사 ✓
부인 朴誠愛 이학박사

대중회 조직부장으로 있는 趙泰雄박사는 동국대학 화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거쳐 1935.

